Piano Concerto, Op. 42

- □□

정보

Arnold Schoenberg: Piano Concerto, Op. 42

개요
곡명: Piano Concerto, Op. 42
작곡가: Arnold Schoenberg (1874–1951)
작곡 시기: 1942년
초연: 1944년 2월 6일, New York의 NBC Orchestra's Radio City Habitat. Eduard Steuermann 독주, Leopold Stokowski 지휘, NBC Symphony Orchestra 연주.
헌정: Henry Clay Shriver
장르: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협주곡
소요 시간: 약 20분
구성 규모: Andante, Molto allegro, Adagio, Giocoso (moderato)가 쉼 없이 이어지는 4개 구간

IMSLP: Piano Concerto, Op. 42

Wikipedia: Piano Concerto

Arnold Schoenberg의 Piano Concerto, Op. 42는 하나의 악장 안에 네 구간을 연속해서 배치한 피아노 협주곡이다 . Andante에서 시작해 Molto allegro, Adagio, Giocoso (moderato)로 이어지며, 네 구간은 각각 독립된 악장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협주곡 안에서 빠르기와 극적 기능을 바꾸는 공식 구분이다.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의 관계도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되지 않고, 선율 제시와 짧은 응답, 밀도 높은 결합을 차례로 거친다.

의뢰와 작곡, 초연

1942년 Oscar Levant는 Schoenberg에게 짧은 피아노곡을 의뢰했지만 , Schoenberg는 네 구간을 가진 전곡 협주곡을 쓰기 시작했다. 사례금과 독점 연주권을 둘러싼 협상이 끝내 성사되지 않은 뒤 Henry Clay Shriver가 비용을 부담했고, Schoenberg는 작품을 그에게 헌정했다. 공식 카탈로그는 1942년 6월 27일 이전의 스케치에서 12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작곡 범위를 제시한다.

세계초연은 1944년 2월 6일 New York의 NBC Orchestra's Radio City Habitat 에서 열렸다. Eduard Steuermann이 독주하고 Leopold Stokowski가 NBC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했으며 , The American Scholar의 작품사 해설은 이 공연이 전국 라디오로 방송되었다고 전한다. 이 초연은 Schoenberg가 미국에서 만든 12음 협주곡이 넓은 청중에게 전달된 초기 사례로 기록된다.

출판 정보와 판본

G. Schirmer가 첫 출판을 맡았다. Eduard Steuermann의 2대 피아노판은 1944년 7월 11일에 먼저 나왔고, 총보는 plate 44355로 서지에 기록된다. Schoenberg Center는 비자필 광화 정서본의 원본 사진 인쇄
총보가 1946년 이전에는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하므로 , 최초 출판 연도와 실제 총보 발행 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연구의 기준 자료는 Tadeusz Okuljar가 편집한 Arnold Schönberg, Sämtliche Werke, Abteilung IV, Band 15의 1975년 본문과 1988년 비평보고서다 . 이 전집에는 스케치, 음렬표, Particell 자료가 함께 수록되며, 관련 원고는 Staatsbibliothek Preußischer Kulturbesitz와 Arnold Schoenberg Center의 소장 자료로 연결된다. Wise Music Classical은 현재 대여 자료를 제공하며, 1944년 Schirmer 초판과 별도의 현대 실연 경로를 제시한다.

소요 시간

Schoenberg Center와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전곡을 약 20분으로 제시한다. Amalie Malling과 Michael Schønwandt의 Chandos 녹음은 20분 21초다. Wise Music Classical은 같은 작품을 28분으로 표시하며, 그 차이를 만드는 판본 ·연주 조건을 페이지에서 특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 20분을 대표값으로
삼되, 공연 자료에 따라 더 긴 시간이 제시된다는 점을 함께 기록한다.

편성

독주: 피아노
목관: 플루트 2(제 2는 피콜로 겸용),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타악: 팀파니, 베이스드럼 , 심벌즈, 공, 오케스트라 벨, 스네어드럼 , 실로폰
현악: 현악 합주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이 악기 목록을 개별 악기명으로 제시하고, Wise Music Classical은 타악기 세 파트를 묶은 약호로 요약한다. Wise Music의 약호는 주자 수를 직접 제시하지 않으며, LA Phil의 상세 목록과 함께 파트 묶음 방식으로 이해된다. 피아노는 독주 선율을 맡으면서도 관현악의 짧은 선과 음색을 받아 협주 관계를 만드는 중심 악기다.

단악장 네 구간의 진행

Andante

Andante는 피아노가 먼저 선율을 제시하고 관현악이 간헐적으로 응답하는 구간이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의 해설은 이 선율에서 빈 왈츠의 기억을 들으며, The American Scholar가 전하는 Schoenberg의 설명 문구 Life was so easy 와 연결한다. 이 문구는 출판 악보의 공식 악장명이 아니라
작곡가가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남긴 프로그램적 제목이다. 피아노와 관현악은 처음에는 교대로 발언하지만 , 구간이 진행될수록 음렬의 짧은 조각을 함께 엮는다.

Molto allegro

Molto allegro는 Andante의 재료를 빠른 움직임과 충돌로 바꾸며, 기능상 스케르초에 가까운 구간을 만든다. Suddenly hatred broke out 라는 작곡가의 설명은 트롬본, 피콜로, 목관과 금관이 만드는 거친 음향을 역사적 폭력의 이미지와 연결하는 해석적 단서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은 피아노가 묵음 건반을 누른 채 다른 음역을 때려 공명을 만드는 효과도 소개한다. 이 세부는 특정 연주의 청취와 악보 해설을 연결하는 사례이며, 재현되는 음향 비중은 연주마다 달라질 수 있다.

Adagio

Adagio는 긴 관현악 도입 뒤에 피아노가 응답하는 느린 구간이다. A grave situation was created 라는 설명 문구와 함께 읽으면, 앞선 충돌이 무거운 정지로 바뀌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절정 직전에 침묵과 피아노 카덴차가 놓인다고 설명하며, 이 배치가 독주와 관현악 사이의 거리를 가장
선명하게 만든다고 본다. 여기서 카덴차는 낭만주의 협주곡의 독립된 과시부라기보다 단악장 전체의 긴장을
잠시 멈추는 장치로 기능한다.

Giocoso (moderato)

Giocoso (moderato)는 반복 리듬과 익살스러운 표면으로 방향을 바꾸며, 기능상 론도에 가까운 결말을 만든다. Schoenberg가 붙인 But life goes on 이라는 문구는 이 가벼운 움직임을 단순한 낙관으로 고정하지 않고, 앞선 위기의 기억이 남은 상태에서 삶이 계속되는 장면으로 해석하게 한다. Los Angeles Philharmonic 은 이 구간에서 반복되는 리듬 동기와 어두운 긴장이 함께 남는다고 설명한다. 네 구간은 이 결말에서 하나의 음렬 ·주제 재료를 다른 운동 방식으로 되돌려 단악장을 닫는다.

12음 기법과 협주 관계

공식 자료와 IMSLP는 이 작품을 12음 기법으로 분류하지만 ,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음렬을 기계적인 규칙의 목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하나의 주제에서 네 구간이 파생되고, 불협화음이 장식이 아니라 음악
문법으로 기능한다. 동시에 삼화음적 울림과 옥타브 중복, Brahms를 연상시키는 화성 감각과 후기
낭만주의의 정서가 12음 어법 안에 나타난다는 해설도 있다. 이러한 요소는 Schoenberg가 자신의 방법을 후기 작품에서 유연하게 운용한 사례로 읽힌다.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은 영웅적 독주자와 반주라는 두 역할로 고정되지 않는다. 피아노가 음렬의 윤곽을 선율처럼 제시하면 관현악이 짧은 단위로 응답하고, 이후에는 두 매체가 실내악처럼 분산된 질감 속에서 서로의 선을 이어 간다. Molto allegro의 공명 효과와 Adagio의 침묵 뒤 카덴차는 이 협주 관계가 음량뿐 아니라 음역, 잔향, 시간의 배치로도 만들어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네 프로그램 문구는 망명기의 개인적 경험을 작품에 연결하는 해석 자료다. Sudip Bose는 이를 옛 빈의 기억, 유럽의 폭력, 위기 뒤의 생존이라는 서사로 읽는다. 이 문구는 출판 총보의 정식 제목이 아닌 해석 자료로 남으며, 작품은 특정 전쟁 사건보다 넓은 망명 경험의 서사로 읽힌다. 작품은 12음 구조와 관현악의 드라마를
통해 기억과 현재의 긴장을 구성하며, 자서전적 해석은 그 위에 놓이는 하나의 수용 관점이다.

초연 수용과 녹음

초연 직후의 평가는 엇갈렸다. Olin Downes의 부정적인 비평과 Virgil Thomson의 호의적인 평가가 함께 전해지며, 같은 12음 협주곡이 정서적 소통과 난해한 현대음악이라는 서로 다른 언어로 수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후대에는 Eduard Steuermann, Glenn Gould, Alfred Brendel 등 여러 피아니스트의 녹음이 작품의 연주사를 넓혔다.

Amalie Malling, Danish National Symphony Orchestra, Michael Schønwandt가 1994년에 녹음한 Chandos CHAN 10285는 2005년에 발매되었다 . Chandos가 제시하는 협주곡 시간은 20분 21초다. American Record Guide는 Malling의 가볍고 매력적인 터치와 낭만적 ·프랑스적인 성격을, Penguin Guide는 지적인 독주와 투명한 오케스트라 질감을 평가했다. Gramophone은 서두르지 않고 독단적이지 않은 프레이징, 섬세하게 들리는 질감, Schoenberg의 고통스러운 서정성을 장점으로 들었다. 이 녹음은 빠른
구간의 추진력보다 프레이징과 관현악 투명도를 통해 단악장 안의 네 구간을 연결하는 해석을 보여 준다.

주요 자료

Arnold Schoenberg Center / Belmont Music Publishers,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op. 42: 작곡 범위, 초연, 헌정, G. Schirmer 출판, 전집과 원고 자료.

Los Angeles Philharmonic, Piano Concerto, Op. 42: 네 구간의 구조, 편성, 12음 어법, 음향과
협주 관계 해설.

Wise Music Classical, Concerto for Piano, Op. 42: 현행 대여 자료, 편성 약호와 28분 표기.

Sudip Bose, “The Story of an Exile”, The American Scholar: Oscar Levant의 의뢰, Henry Clay Shriver 헌정, 초연 방송, 네 프로그램 문구와 초연 수용.

Chandos, Schoenberg: Pelleas und Melisande / Piano Concerto, Op. 42, CHAN 10285: Amalie Malling·Danish National Symphony Orchestra·Michael Schønwandt의 녹음 정보, 트랙 시간과 전문지 평론.